

“최순실 모른다” “차은택도 모른다” ... 모르쇠 우병우 끝까지 뱉뱉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

‘최순실 청문회’ 주요 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태도는 한마디로 ‘뱉뱉’했다.

검찰 출두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22일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에게서 여야 의원들은 만족할만한 답변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우 전 수석은 잇따른 의원들의 송곳 추궁에 맞서 “송구하다”는 입장 표명은 했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나는 할 일을 했다”는 식의 답변을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집중됐지만 우 전 수석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일관된 목소리 톤으로 답변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검찰이 당일 청와대와의 통화 내역이 담긴 해양경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수사팀 간부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지만, 당시 검찰과 해양이 압수수색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을 보고받고 상황 파악 차원에서 통화했을 뿐 청와대로서 조정하거나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압수수색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고 묻자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통화 상대방에 대해 “부장검사급이나 그 이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당시 수사팀 간부인 안상돈(광주교차 차량검사), 이두식(광주지검 차량검사), 윤대진(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론하자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싶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해경수사 광주지검·고검 검사와 통화는 시인

최순실 존재 정윤희 문건 사건때 정씨 부인 정도로 알아

조여옥 대위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에 태반주사 처치”

우 전 수석 진술에 따르면 2014년 6월 당시 해경은 검찰이 서버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데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며 청와대 담당 비서관을 통해 항의했고, 이는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

우 전 수석은 “현장에서 검찰과 해경, 두 국가기관이 갈등 내지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상황만 파악해 봤다. 압수수색 장소에서 빠진 건 맞는 것 같고, (검찰은 해경에) 임의 제출하라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거지, 청와대가 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상태에서 다른 조치는 안 했다”고 말했다.

세누리당 정윤희 의원이 “국민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왜 분노한다고 생각하는가”고 묻자, 우 전 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동안 증인 출석을 피하려고 도망을 다녔다는 비판에 대해 “10월 말 민정수석을 그만뒀는데, 그 전날까지도 수십 명의 기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11월 초부터 집을 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최순실 씨와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윤희 문건” 사건 때 정 씨의 부

인이라는 정도로 (최 씨의 존재를 알았다)며 “(그 이후로 최 씨를) 본 적 없다”고 밝혔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자신이 ‘노무현 씨, 당신은 더이상 대통령도 사시(사법시험)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옳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 전 대통령) 조사 당시 입회한 변호인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검찰청사 포도리안에서 우 전 수석에게 던진 기자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여 반쪽을 찢던 부분에 대해서는 “노려봤다가보다 여기서 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탁 다가와 광장히 크게 질문해,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내려다본 것”이라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에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과 10명 이내의 청와대 직원들이 자신으로부터 태반·백옥·감초주사 처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종환 의원이 “태반·백옥·감초주사를 (대통령에게) 직접 놓은 건 조 대위냐”고 묻자 “처방이 있는 한 제 처치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최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로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탄핵심판 신속 결론 ... 팔 걷은 헌재

1차 준비절차 기일 열어 소추사유 직권 정리

헌법학자들도 “국익 위해 신속히 진행해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를 직권으로 정리하고 박 대통령에게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등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섰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현재 소심판정에서 제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 52개와 증인 28명을 채택했다.

이날 심리에서 헌재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별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고, 가장 논란이 되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규명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소송 지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당사자들이 내놓은 주장과 증거를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기 위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의 ‘교룡정리’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본격 심리에 앞서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9개의 탄핵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유별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자칫 심판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유일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례인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에서는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는데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그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유형별 정리’를 제안했다.

이어 헌재는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했고, 소추위원 측이 동의해 마무리됐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도 이날 심리에서 “헌재가 많은 연구와 토론 끝에 준비해 열성을 기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어 다행이란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

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 의미를 가지는 날이므로 대통령도 역시 기억이 남달라”고 말했다.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사각별 업무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탄핵심판을 앞두고 좌담회와 토론회도 22일 여러 곳에서 열렸다.

헌법학자인 함승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주최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서 발제를 맡아 탄핵심판을 위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고인’ 등 개인·사인(私)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탄핵심판에서 헌법기관인 ‘대통령’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속한 탄핵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잠정적인 기간에 현상유지적인 직무수행만 할 수 있으므로 국익을 위해 탄핵사태가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순실 모녀 독일에 8000억대 재산 보유 의혹”

독일 헤센주 검찰 수사

유령회사 500개 포착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독일에 8000억 원대 자산을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에 22일 ‘최순실 모녀가 8000억대 자금세탁 불법 취득 재산 은닉 등의 범죄로 독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헤센주 검찰은 삼성이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최순실 모녀의 독일 회사 비데스포에 보낸 37억원의 흐름에 대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 모녀가 스마코치 집사 등 10여 명의 명의로 유령회사 500여개를 관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최순실 모녀는 유령회사를 통해 유럽 지

역에서 현금 부동산 등으로 8000억대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독일 검찰의 수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최순실 모녀는 독일의 범죄조직방지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금대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재산 8000억 원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 모녀는 5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독일 등 유럽에서 현금, 부동산으로 8000억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독일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최순실 일가의 돈 세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지만, 한국 검찰은 사법공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순실씨가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소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과 관련, 최 씨 변호인이 혐의의 모든 사실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비리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설명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벌리 적용과 유무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 변호인인 이재경 변호사는 22일 “최씨 공소사실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이고,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다”며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초특가 실속규슈여행!** 499,000원
(단 3회! 12/19, 12/22, 12/25)

★**고품질 북큐슈여행!** 699,000원
(단 3회! 12/19, 12/25, 12/28)

규슈 출발일: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팀
※공통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풍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풍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A320-200 / 좌석: 150석
★한별제품★
한별메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동행번호 재등록 2003-1호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팀
※공통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여행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여행 1인당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방 및 부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기차 등 교통편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권리 가입업체 / 여행사 계약사(회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항공비(항공료, 세금, 공항비, 각종 수수료 포함)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